AI 기업人

의료 AI 솔루션 첫 상장 기업 제이엘케이 김 동 민 대표

"데이터·비대면·AI의료 플랫폼 연결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 조성이 목표"

의료 인공지능(AI) 코스닥 첫 상장기업으로 주목받는 제이엘케이가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 출발은 부산 고신대복음병원 AI 진단솔루션이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지난해 초 원격의료 앱인 '헬로헬스' 출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단솔루션 기능을 포함해 허가를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AI 분석 중심의 진단솔루션 기능을 고신대복음병원 선별진료소와 연결해 실증하고, 원격진료 규제가 풀리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AI 진단솔루션 기능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곳은 제이엘케이와 비트컴퓨터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제이엘케이를 설립한 김원태 대표와의 인연과 도쿄대(동경대) 조교수 자리도 박차고 나와, 2016년 4월 제이엘케이 CTO(최고기술경영자)로 회사에 합류했다. 또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제이엘케이는 2019년 초 그를 공동 대표로 임명했다.

"제가 도쿄대에 있던 2015년부터 제이엘케이 사업을 도왔습니다. 석사 때 어느 정도 자기장 세기면 고화질 MRI를 찍을 수 있는 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뇌졸중 진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뒤진 결과 일본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셋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인뇌 MR영상센터에서 통계적 해석을 위해 11개 대학병원에서 7년 동안 MRI 데이터 140만장을 모아두었습니다. 특히, 퀄리티 컨트롤(QC)가 된 무결성 데이터로 한국에 이런 데이터 셋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 때부터 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거듭했고, 그 해 데이터 제공에 합의하면서 의료 AI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 앱 '헬로헬스' 허가받아
규제 풀리면 실생활서 활용 가능

에이트로스캔, AI가 5분만에 진단
AI효율성 입증… 치매진단에 활용

빅데이터플랫폼 '헬로데이터' 진출
지난해 성장률 2500% 성과 거둬

"MRI에서 뇌를 분석하는 데, 임상에 쓰이는 영상이 깨끗하게 안 나오고 20장씩 잘려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2차원으로 CNN(딥러닝 기법의 하나인 합성곱 신경망)을 하는 것과 3차원으로 끊어진 영상에서 CNN을 하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그는 영상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엘케이는 지금까지 37개의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차례로 패키지화해 브랜딩화하는 전략을 활용해왔다.

AI 체스트 엑스레이 제품으로는 클린턴재단에서 전 세계의 잘 나가는 6개 기업들이 경합을 벌인 끝에 1등을 차지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많은 AI 기업들이 논문을 통해 제품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지만, 저는 사업화를 더 중요시해 POC(기술검증)에 참가를 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두바이는 물론 동남아 등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엘케이가 특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은 제품의 빠른 경량화였다.

또 미니PC 조차도 버거워하는 곳이 많아 AI 분석의 정확도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노트북에서 돌아가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미니PC에서 구동되는 뇌정량 분석 솔루션인 '에이트로스캔'은 서울대 강남센터에 도입됐는데 리포트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의정부의 한 병원은 이 솔루션을 9개나 구입하는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위해서는 MRI에서 뇌의 영역을 62개로 나누고 각 영역의 피지 두께 등을 재 뇌의 모양이 얼마나 변했는데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트로스캔은 인공지능이 5분 만에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치매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걸려서 못하던 것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효율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이엘케이는 또 빅데이터 플랫폼 '헬로데이터' 시장에도 진출해 디지털 뉴딜과 맞물리며 매출이 거의 없던 2019년 대비 지난해 2500%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료 데이터 핸들링을 어려워하던 의료 분야에서 활용이 가장 많고, 자동차용 데이터에도 이용되면서 호재를 보인 것.

김 대표는 "지난해 매출은 50억원 정도가 기대된다"며 "아직 BEP(손익분기점)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실적 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약개발기업인 닥터노아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하고 유전자 분석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신약개발 플랫폼인 '헬로진'도 개발해, 기존 약물 중 코로나 치료제를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올해는 시장에서 놀랄만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만 준비되면 다른 분야에도 도전이 가능한 '확장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저희가 가진 데이터 플랫폼, 비대면 플랫폼, AI 의료 플랫폼이 다 연결돼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데이터부터 서비스, AI 알고리즘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미니PC(왼쪽 단말기)에서 구동되는 뇌정량 분석 솔루션 '에이트로스캔'. /제이엘케이

AI 기업 마크비전이 세계 최대 엑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의 스타트업 투자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됐다. /마크비전

마크비전, 세계최대 투자 프로그램 선발

와이콤비네이터서 스타트업 육성
자금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등 활용

인공지능(AI) 기업 마크비전이 세계 최대 엑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의 스타트업 투자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트위치, 코인베이스 등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을 발굴해 낸 미국 실리콘밸리의 엑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는 사업 아이디어, 팀과 구성원, 사업 독자성 및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육성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최종 심사 기준을 통과한 스타트업은 자금 투자 및 성장전략 자문 지원을 비롯해 와이콤비네이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수에는 1만개 이상 스타트업이 지원해, 최종 150여개가 선정돼 1%대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마크비전의 경우,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공동 창업자들을 필두로 AI 기반의 혁신적인 브랜드 보호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과 ▲기존 산업이 적극 해결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부분 ▲전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흐름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B2B SaaS) 시장에서 유례없는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 마크비전은 론칭 5개월 만에 랄프로렌코리아, 삼양식품 등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매출도 매월 20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AI 대학원 2곳, SW 중심대학 9곳 지원

과기정통부, 18일 신규대학 공모
연간 최대 20억 최장 10년간 지원

인공지능(AI) 대학원이 올해 2개가 신규 선정돼 총 14개의 AI 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일반트랙 7개, 특화트랙 2개 등 총 9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고급·전문인재 양성 사업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 대학원의 2021년도 신규 대학 공모가 1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SW 중심대학 사업은 2월 29일까지, AI대학원 사업은 2월 19일까지이다.

SW 중심대학은 일반트랙은 SW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되며, 기존 SW 중심대학 중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대학이 재선정된 경우, 6년 간만 지원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특화트랙은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재학생 수 1만명 이하 대학이 지원가능하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중소대학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이 제한된다.

일반트랙 보다는 적은 규모의 예산인 연간 10억원이 지원되며, SW 학과 100명이상 입학정원, SW 학과 대학원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반트랙에 비해 완화된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그동안 SW중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신규대학의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선발하는 대학 중 50% 이상을 신규대학에 배정할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IBM, 작년 9130개 美 특허출원… 28년 연속 1위

IBM이 28년 연속 미국 특허 1위를 차지했다. IBM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보안 등에서 수많은 특허를 받았다. IBM은 IBM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지난해 9130개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다리오 길 IBM 리서치 수석 부사장은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적 사고와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이어져온 연구 개발에 대한 IBM의 투자와 헌신이 고객과 사회에 큰 혜택을 가져온 정보통신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신제품의 기반을 닦았다"고 밝혔다.

IBM은 기업의 AI 사용 확대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며 2300개 이상의 AI 특허를 받았다. 이 분야의 특허는 가상 상담원이 고객에게 말할 때 감정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하는 기술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I까지 다양하다. IBM은 자연어 처리, 자동화 및 신뢰 구축에서 AI 혁신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IBM 리서치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IBM 왓슨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